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을 활용한 청소년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의 개인차 및 종단적
변화양상 분석

Analysis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Longitudinal changes in Adolescents'
Attention Difficulties and Physical Symptoms
Using LTA(Latent Transition Analysis)

울산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김지혜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을 활용한 청소년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의 개인차 및 종단적
변화양상 분석

지도교수 최 현 주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8월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교 육 학 과
김 지 혜

김지혜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박 종 덕 (인)

심사위원 정 종 원 (인)

심사위원 김 병 직 (인)

심사위원 조 수 현 (인)

심사위원 최 현 주 (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4년 8월

목 차

국문초록	1
I. 서 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문제	6
II. 이론적 배경	7
1. 주의집중 어려움의 개념 및 특성	7
2. 신체증상의 개념 및 특성	8
3.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결과 양상	11
가. 학업열의	
나. 삶의만족도	
4.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개인차 원인	14
가. 부모양육태도	
나. 교사관계	
다. 친구관계	
5. 잠재전이분석	18
III. 연구방법	20
1. 연구대상	20
2. 측정도구	20
가. 주의집중의 어려움	

나. 신체증상	
다. 학업열의, 삶의만족도 척도	
라.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척도	
3. 자료 분석방법	23
IV. 연구결과	25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25
2. 초등학교 4학년 잠재집단 분류	27
가. 잠재집단 분류	
나. 잠재집단 특성	
다. 잠재집단 개인차 분석	
3. 중학교 1학년 잠재집단 분류	30
가. 잠재집단 분류	
나. 잠재집단 특성	
다. 잠재집단 개인차 분석	
라. 잠재집단 전이에 따른 결과 양상	
4. 잠재집단 전이 양상 및 개인차 분석	34
가. 잠재집단 전이 양상	
나. 잠재집단 전이에 따른 개인차 분석	
V. 논의	38
참고문헌	51
ABSTRACT	63

< 표 목 차 >

<표 I-1> 주의집중의 어려움 문항 및 신뢰도	21
<표 I-2> 신체증상 문항 및 신뢰도	21
<표 I-3>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 문항 및 신뢰도	22
<표 I-4>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문항 및 신뢰도	22
<표 I-5>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26
<표 I-6> 초4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분류	27
<표 I-7> 초4 잠재집단별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평균	28
<표 I-8> 초등학교 4학년 시기 부모, 교사, 친구의 영향	29
<표 I-9> 중1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분류	31
<표 I-10> 중1 잠재집단별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평균	32
<표 I-11> 중학교 1학년 시기 부모, 교사, 친구의 영향	33
<표 I-12> 중학교 1학년 시기 잠재집단별 결과 변인의 평균	34
<표 I-13>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전이 양상	34
<표 I-14> 잠재집단 전이에 부모, 교사, 친구의 영향	36

< 그림 목 차 >

[그림 II-1]	연구 모형	19
[그림 II-2]	초4 적합도 정보지수	28
[그림 II-3]	초4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잠재집단 그래프	29
[그림 II-4]	중1 적합도 정보지수	31
[그림 II-5]	중1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잠재집단 그래프	32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잠재전이분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청소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분류와 분류에 미치는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의 영향을 알아보았고, 중학교 1학년 잠재집단별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잠재집단이 전이되는 양상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전이 양상에 있어서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잠재집단 분류를 위해서 정보지수, 분류의 질, 모형의 비교 검증, 분류율을 고려하여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을 결정하였다. 또한 Asparouhov와 Muthén이 제안한 3단계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잠재집단별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고,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에 따른 전이 양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8년 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에 모두 응답한 2,154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은 하집단(53.4%), 중집단(39.3%), 상집단(7.3%) 순으로 3개 도출되었다. 또한 중학교 1학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은 중집단(45.4%), 하집단(44.6%), 상집단(9.8%) 순으로 3개 도출되었다. 이처럼 잠재집단별로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높은 청소년은 신체증상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낮은 청소년은 신체증상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비교적 낮은 청소년부터 높은 청소년들까지 상이한 잠재집단이 있음과 공병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분류에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부모양육태도(따스함, 거부, 비일관성), 친구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분류에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부모양육태도(따스함, 거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별 결과변인

을 살펴본 결과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높은 집단은 학업열의와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낮은 집단은 학업열의와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 잠재집단별로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에서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높게 겪는 청소년은 학교생활부적응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로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의 전이양상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증가한 청소년은 662명(30.7%)이며, 유지한 청소년은 1,042명(48.4%)이며, 감소된 청소년은 450명(20.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되는 경우보다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섯째,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로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전이에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4학년 하집단의 경우, 교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초등학교 4학년 중집단의 경우, 부모양육태도가 구조제공적일수록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상집단에 비해 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부모양육태도가 따뜻하고, 구조제공적일수록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처럼 잠재집단 전이에 있어서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따스함), 교사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 시기에는 인지, 정서, 신체의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정서행동문제의 취약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서행동장애 위험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3.82%, 중학교는 7.53%, 고등학교는 5.82%로 나타나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심리적 취약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김세연, 김재철, 2020).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초기에 발생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은 사춘기를 지나며 심화되는 경향이 있고, 성인기까지 이어져 만성적인 우울이나 불안, 혹은 자살시도나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삶의 만족도를 저해할 수 있다(김경심, 2022). 그러나 조기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견되고 적절히 다루어진다면 성인기 정신질환 발병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기 정서행동문제를 크게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로 나누고 있으며, 외현화 문제로는 주의집중, 공격성, 비행, 내재화 문제로는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을 포함시키고 있다(김용숙, 2024).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박선희(2022)의 연구에 따르면 외현화 문제 가운데에서는 공격성이 가장 활발히 다루어졌으며, 다음은 비행, 마지막은 주의집중의 순서였다. 내현화 문제의 경우 우울 및 불안을 다루는 연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사회적 위축, 마지막은 신체증상의 순서였다. 이처럼 주의집중과 신체증상을 주제로 발표된 연구물은 수는 적는데, 이는 주의집중 및 신체증상 문제가 다른 정서행동문제에 비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왔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은 교우관계,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학교 부적응 문제로 이어진다(서영임, 2019). 주의집중이 가능한 청소년은 시간 별로 조직화된 학교 시간 속에서 긍정적인 적응이 예측되며,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학업을 수행하게 된다(김정민, 송수지, 2014). 만일 학령기 청소년이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수업시간에 집중하기 어려워 학업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신체증상 역시 문제행동, 학업성취, 가족문제 등과 관련된다는

보고가 있다(신선미 외, 2011). 또한, 주의집중과 신체증상 문제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과 관련이 깊는데(박소연, 2021; 하미영, 정현희, 2021), 이는 청소년 시기의 우울이나 불안이 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주의집중을 하지 못하고 두통, 복통 등 몸이 아픈 것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박정은, 2020). 신체증상과 우울과의 관련성은 특히 한국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결과가 있는데(신현균, 2003), 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여기는 문화와 관련될 수 있다. 김해진과 동료들의 연구(2023)에 따르면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 아동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어렵다. 이처럼 해소되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과 심리적 어려움은 신체증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기 주의집중 및 신체증상 문제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함께 연구한 논문은 제한적이지만, 일부 문헌들을 통해 두 변인의 관련성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우선, ADHD로 진단을 받은 아동의 호소문제를 다룬 안미영(2009)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주의 유형 아동은 신체증상에 대한 호소가 많았다. 백승영과 이승희(2014)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에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은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함께 다루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 문제 가운데 주의집중, 내재화 문제 가운데 신체증상을 중심으로 청소년기의 심리적 어려움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 시기는 변화가 많은 시기이기에 대상자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서행동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정서행동문제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변화 추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 수 있다면 개입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질적인 잠재계층의 이동 양상을 살펴보는 잠재전이분석은 사회과학분야에서 최근 각광받는 연구 방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잠재전이분석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소수만이 존재한다. 예컨대 하아영 외(2021)는 중학교 1학년의 학업무기력 잠재집단이 2학년 학업무기력 잠재집단으로 전이되는 데 있어서 학업성취도, 그릿, 학교생활만족도, 긍정적 및 부정적 양육태도가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전이분석을 통해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으로 구성되는 잠재계층을 규명하고, 이들 잠재계층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T1)과 중학교 1학년(T2)을 관찰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은 학업이 어려워지면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고,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큰 변화를 겪으며 사춘기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두 시점은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과 집단 간 전이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지 이론(Social Support Theory)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받는 정서적, 물질적 도움은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추고, 정신건강 개선을 촉진한다(Taylor et al, 2015). 사회적 지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실제적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여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한국 문화에서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완화하거나 예방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하리라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교사,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가 청소년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과 사회적지지 관련성을 살펴보면, 지성에 외(2017)의 연구에서 안정애착 유형의 어머니가 양육한 자녀의 주의집중력이 다른 유형의 어머니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모의 정서적 안정감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부모 자녀 간 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박희정(2015)의 학령 후기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신체증상과 사회적 지지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부모지지와 친구지지가 신체 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주변 사람들로 부터의 지지 경험이 신체증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모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다. 특히, 학교급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를 조사한 손수경(2022)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초등학생 시기에 가장 부모지지,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시기적으로 부모와 교사의 도움이 많이 제공되는 시기이기도 하나 사춘기 절정에 비해 초등학생 시기의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모, 교사,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 경험은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이 감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T2) 시점에 대해 잠재집단 별 학업열의와 삶의 만족도의 평균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중학교 시기 학업성취는 학교에서의 성취 경험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회적응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학업성취를 위해 초등학생 시기부터 시작된 과도한 학업 수행은 학업소진으로 이어져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학업을 수행해야 하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학업수행과 성취에 높은 동기를 갖고, 강하게 몰입하도록 하는 학업열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변인이나 청소년 시기의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인 적응을 예측하였고(Jiang et al, 2016), 이후 시기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Lyons et al, 2013). 이처럼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은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성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학업열의는 청소년 시기에 더 강조되는 변인이며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변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시점의 잠재집단들이 학업열의와 삶의 만족도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이루는 이질적인 잠재집단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T1)과 중학교 1학년(T2), 두 시점의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각 시점에서의 잠재집단을 규명하고, 부모, 교사, 친구관계가 이들 잠재집단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중학교 1학년(T2) 잠재집단에 대해서는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결과변인으로서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4학년(T1)에서 중학교 1학년(T2)으로의 전이 양상을 파악하고, 부모, 교사, 친구관계가 잠재집단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1차년도에 수집된 초등학교 4학년 자료와 4차 년도에 수집된 중학교 1학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초등학교 4학년의 주의집중 어려움과 신체증상의 잠재집단은 몇 개이며, 그 특성은 어떠한가?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2. 중학교 1학년의 주의집중 어려움과 신체증상의 잠재집단은 몇 개이며, 그 특성은 어떠한가?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잠재집단별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잠재집단 전이는 어떠한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주의집중의 어려움의 개념 및 특성

주의집중 능력은 특정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주의력과 단기기억 정보가 장기기억이 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집중력을 포함한다(이명경 외, 2013). 이와 반대로 주위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주의집중의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주의집중의 어려움은 청소년이 숙제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하는 것, 과제나 활동에서 주의를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 불필요한 자극에 의해 주의가 쉽게 분산되는 것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최사라, 2019). 초등학교는 구조화된 학교 환경 속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공간이기에 초등학교 이후 주의집중 어려움의 특성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경험하던 청소년은 고학년이 될수록 학습에 대한 흥미, 동기가 낮아지게 되고, 이는 불안정한 정서에도 영향을 준다(박시윤, 2016). 이렇듯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수업 집중이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낮은 학업성취의 문제를 겪을 뿐만 아니라 위축,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주의집중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부모와 교사의 지시에 집중하지 못해 지적을 받기 쉬우며, 쉽게 산만해지는 특성으로 친구들과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Hoza, 2007). 그리고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청소년의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자아상에 영향을 주어 건강한 성장을 방해한다(손병덕, 2016). 이처럼 주의집중의 어려움으로 인해 겪게 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들은 청소년들의 삶의 질마저 위협하기에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R. Agarwal et al, 2012). 예전에는 청소년기에 발병한 ADHD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호전되는 정신장애(Mercugliano et al, 1999)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과잉행동은 감소되는 반면 주의집중의 어려움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정신장애로 보고 있다(Y. Ginsberg et al, 2014). 따라서 청소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과 개입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주의집중의 어려움에 대한 개입을 살펴보면, 크게 생물학적인 개입과 심리적인 개입, 사회문화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관심질병통계(2022)에 따르면, 10세에서 19세를 기준으로 주의집중의 어려움으로 673,353명이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약물치료를 통한 신경생물학적 개입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한 것을 알 수 있다. 약물치료를 통해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감

소하여 학교생활 적응이 나아지는 경우도 있으나 약물치료를 중단할 경우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 약물치료만으론 한계가 있기에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개입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명숙, 지은(2023)의 13년 동안 ADHD 아동의 중재적 개입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인지행동치료 뿐만 아니라 놀이를 활용한 자기표현 프로그램(함수현, 2019), 미술치료(박시윤, 2016) 등 다양한 예술 및 신체 활동, 사회기술훈련 기반 중재 등 ADHD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서영임(2019)의 연구에서 행동을 통제하는 자기조절력이 주의집중 문제를 겪더라도 학교적응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밝혀진 것처럼 개인의 심리적인 기능향상을 통해 주의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제공되면서 청소년의 기능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도하거나 교육해야 하는 교사와 부모에 대한 개입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로 인해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던 청소년이 개입이 중단될 경우 심리적 어려움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문화적 개입의 효과 및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주의집중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개입을 위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의집중문제와 스마트폰 과의존 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전숙화(2021)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ADHD 성향의 아동에게 사회적지지가 부적응문제를 감소시킨 한기승(2016)의 연구로 보아 ADHD 성향의 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지가 분노를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의집중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에게는 사회적 지지가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분노 등 변인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대해 더 살펴보려고 한다.

2. 신체증상의 개념 및 특성

신체증상(Functional Somatic Symptoms, FSS)이란 자기 자신의 심리상태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압할 때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김윤례, 2020). 구체적으로 두통, 복통, 근육통 등 신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의학적인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신체적인 통증으로 자신의 심리적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신체증상은 대다수 연령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흔한 현상이나 성장과정에 놓여

있는 청소년기에 더 자주 나타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유진(2016)의 연구 결과 지난 1달간 보건실을 이용한 청소년이 86.1%에 해당하였다. 또한 윤혜경(2007)의 연구에서 신체증상 경험이 어떤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어느 정도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2주 동안 경험한 신체증상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83.2%의 청소년들이 한 가지 이상의 신체증상을 경험하였으며, 응답한 청소년 중 1가지 증상을 경험한 청소년이 12.1%, 그 외에는 2가지 이상의 증상을 경험하였다. 또한 개별 신체 증상을 살펴보면, 두통(38%), 복통(36%), 어지러움(32%) 순으로 신체증상을 경험한 결과로 보아 많은 수의 청소년이 다양한 신체증상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신체증상 장애로 진단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기에 부모와 청소년 모두 증상에 대해 오래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소년이 신체증상을 불규칙적으로 호소하는 경우, 부모는 피병으로 오해하여 무시하거나 신체질병으로 간주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수의 청소년이 신체증상을 겪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신체증상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2013년에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이 DSM-5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까다로운 진단기준으로 신체화 장애 진단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DSM-5로 개정되면서, 신체화 장애가 신체증상장애로 용어가 변경되고 신체증상 진단기준도 1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완화되는 변화가 있었다(APA, 2013). 신체증상에 대한 용어와 진단기준의 변화는 사회적으로 신체증상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현실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중 뚜렷한 소견이 없는 신체증상으로 매일 생활에 지장을 받는 청소년이 흔하며(S. M. van Geelen et al, 2015),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신체증상은 학업 성취 저하, 친구관계의 어려움, 학교생활부적응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하주영, 심보윤, 2016). 또한 신체증상과 정서요인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우울은 신체증상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울이 신체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한정원, 2017).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많이 호소하는 사회적 위축 역시 신체증상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정미선, 2021). 이외에도 이전 시점의 삶의 만족도가 신체증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증상이 이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 김윤례(2020)의 연구 결과를 통해 삶의 만족도와 신체 증상의 관련성이 높음을 밝혔다. 이처럼 다양한 선행연구로 보아 여러 정서적 요인이 신체증상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신체증상에 대해 의학적인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과정을 포함한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윤례

(2020)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 증상을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신체증상 특성에 대한 부족한 이해는 적절한 개입을 놓쳐 신체증상의 재발위험과 만성화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되기에 신체증상에 대한 이해와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체증상에 대한 개입방법에는 크게 생물학적인 개입과 심리적인 개입, 사회문화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체증상은 심리적인 불편감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증상이기에 심리적인 개입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신체증상에 대한 심리적인 개입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 상태를 바꾸거나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갖도록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교육(박성희, 2023)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개입(김순희, 2019), 미술치료(송경아, 2016) 등 청소년의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도록 돕는 심리치료가 효과가 있었다. 청소년 개인을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은 신체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개입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의 신체증상에 대해 심리적인 개입보다는 생물학적 개입이 이루어지기 쉽다. 이는 국민관심질병통계(2022)에 따르면 10세에서 19세 청소년 중 불면증, 복통으로 치료를 받은 청소년 673,353명이었다. 많은 수의 청소년이 신체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생물학적인 개입을 통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청소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선 학교, 학원 등 스트레스 요인에서 벗어나며, 보호자와 함께 동행 하는 경우가 있기에 병원치료 과정에서 심리사회적 개입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생물학적 개입은 신체증상에 대한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의사의 격려와 지지 속에 병원에 다녀온 이후로 증상이 완화될 가능성도 포함한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는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시기로 청소년의 신체증상은 반복될 수 있다. 그리고 반복되는 상황은 부모가 자녀의 신체증상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에게 지속적인 격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청소년의 신체증상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이해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개입 연구에는 박유진(2016)의 연구가 있다. 박유진(2016)의 연구에서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거나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신체증상이 다른 학생에 비해 낮은 결과를 통해 신체증상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개입의 효과성을 밝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체증상에 대해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더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결과 양상

가. 학업열의

학업열의(academic engagement)는 학업 동기를 높여주거나 수행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서 학업에 충분히 몰입하게 해주는 능력을 말한다(김성희, 2022). 대다수의 청소년은 학생으로서 학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있어서 학업열의는 학교 수업에 능동적인 참여와 더불어 학교생활과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하지만 청소년을 학교급에 따라 비교한 이자영(2013)의 연구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열의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업에서의 기초 지식을 쌓는 청소년 초기의 낮은 학업열의는 이후의 학업수행과 학교생활적응의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중학생의 학업성취 정도는 정서문제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데, 이는 유계환(2021)의 연구에서 높은 학업성취가 정서문제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학업성취에서의 실패경험은 부정적인 심리상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청소년 초기의 학업열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업열의와 주의집중의 어려움 간 관련성을 살펴보면, 주의집중력은 학업 수행에 있어서 성취 또는 좌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이다. 이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학습시간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얼마나 집중하여 학습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학업성취에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성식 외(2022)의 연구에서 주의집중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학업열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학업을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자극에 반응하며 주의가 쉽게 분산되며, 부정적인 학습태도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학습태도는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미치며, 낮은 수준의 학업 열의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준다(김정민, 송수지, 2014). 이처럼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학업열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시기에 중요한 학업열의를 잘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의 신체증상과 학업열의 간 관련성을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신체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신체증상이 학업에 대한 방해요인으로 학업성취와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는 김정민, 장영희(2015)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두통, 복통, 소화불량 등 신체증상에 영향을 주었으며, 신현아(2021)의 연구에서 신체증상이 학업무기력 및 성취 저하 등 부적응적

인 결과를 나타낸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신체증상과 학업열의는 양방향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신체증상의 만성화와 낮은 학업열의로 이끌었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학업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백예은, 정혜원, 2021), 사회적 지지 중 부모의 지지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학업열의를 낮췄으며,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학업열의 높였다(최정윤, 임효진, 2021). 부모양육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이은경, 이선희(2021)의 연구에서는 구조제공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후 학업성취도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에게 교사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이현지(2021)의 연구에서 교사와 친밀감, 신뢰감을 형성한 청소년의 경우 아동의 학습 태도와 학업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역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이더라도 학교에서의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김하람, 2021). 또한 최근 들어 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의 사회적 지지 역시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친구 사이의 사회적 지지는 학생 개인의 학습 동기, 학습태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보고 있다(박수현 외, 2017).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료의 관계성 지지가 학생의 학업열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조홍식(2017)의 연구와 학생 간 상호적지지 역할은 학생의 학업동기, 수행행동, 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박수현 외(2017)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생의 학업동기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교사의 역할 만큼이나 학생 간 상호역할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 잠재집단에 따른 학업열의를 살펴보고, 학업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부모, 교사, 친구관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 잠재집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럽다고 자각하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손신영, 2017).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기준과 지각한 삶의 요건이 일치하게 될 때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삶의 만족도는 이후 시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삶 전반의 행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백수진, 임영진, 2013). 또한 삶의 만족도는 삶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 자신이 어떤 진로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데에도 삶의 만족도와 관련성이 나타나 삶의 만족도가 결과변인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Sun & Shek, 2010). 그리고 삶의 만족도는 불변하는 고정 상태가 아니라 개인의 내적 요인과 환경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요인이기에 청소년 시기에 겪게 되는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이 삶의 만족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은 정서불안(박시윤, 2016), 학업열의(서영임, 2019)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의 삶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김미경, 2020) 등 다양한 어려움을 예측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위협한다(R. Agarwal et al, 2012).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ADHD 성향이 주관적 웰빙 수준을 낮췄다는 안재순(2021)의 연구결과와 ADHD 성향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정성진(2022)의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ADHD 성향이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면 삶의 만족이 높아지기 힘들다는 연구 결과로 보아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이후의 삶의 만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B. Oerbeck et al, 2019).

신체증상은 심리적인 이유가 신체증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을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윤례, 2020). 두통, 복통 등 신체적인 고통 자체도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박희정, 2015), 신체증상은 청소년이 실제로 신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고통도 함께 경험하기에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이는 강혜성 외(2021)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신체증상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고, 김윤례(2020)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신체증상과 삶의 만족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삶의 만족도가 청소년 시기의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한아름, 2018). 그 중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현주, 황순택, 2016). 사회적 지지는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자신이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로 부터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과 지지이다(한준수, 2016). 이와 같은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을 높여주며(허무녕, 김춘경, 2022), 자아존중감, 우울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발달에도 관련성이 있었다(박현주, 2021). 이는 부모, 교사,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유계환, 2023). 이에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 잠재집단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부모, 교사, 친구관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 잠재집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개인차 원인

가. 부모양육태도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사회 환경으로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며, 부모양육태도는 부모 혹은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내는 일정한 행동 경향성을 의미한다(Berk, 2010). 그리고 임은숙(2024)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과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정서문제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이제희, 2020). 이에 청소년이 겪는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가족 기능, 부모양육태도 등이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 발달, 그 중에서도 ADHD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되고 있음을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희(2020)의 연구에서 지지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주의력 결핍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과잉 기대하거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와는 주의력 결핍이 정적상관을 보였다. 김윤진(2022)의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적인 통제나 과보호가 아동의 ADHD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부적 관련성이 있으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석문(2004)의 ADHD 청소년의 부모와 일반 청소년 간의 양육태도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의 부모에 비해 ADHD 청소년의 부모는 친밀한 태도가 부족하였고,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화를 자주 표현하였으며, 양육에 대한 기쁨도 낮았다는 결과를 통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ADHD의 특성으로 인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취약성이 있는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의집중의 어려움에 있어서 부모 양육태도

는 매우 중요한 영향 변인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은 삶의 고통을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높은 편으로 한국 청소년들은 학업 부담감 등 과중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고 억압할 때 신체증상으로 나타난다(박성희, 2023). 청소년이 성장하는 동안 삶의 가장 큰 배경이자 영향요인이 되는 가정환경 관련 요인과 신체증상과의 관계를 들여다본 연구가 다수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부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신체증상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남수현, 배은정, 2023),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우울을 매개로 신체증상으로 이어진 연구 결과가 있었다(김은영, 201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적절히 관리 감독할수록(윤기봉, 이사라, 2017), 부모의 지지(김정민, 장영희, 2015), 관심과 애정(차지량, 유미숙, 2010)이 있을수록 신체증상이 적게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행동, 학대나 방치가 있을 경우(윤기봉, 이사라, 2017), 과잉간섭과 기대가 높을수록(전숙영, 2018) 신체증상이 많이 나타났다. 즉 학대나 방치 등 부정적 양육태도를 갖거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부족할 때 청소년이 신체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신체증상을 낮추고, 부정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신체증상을 높이는 변인으로 부모양육태도가 신체증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나. 교사관계

교사는 부모와 더불어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청소년의 중요한 사회 환경을 구성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최지수 외, 2020). 지각된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전이슬, 2023),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를 통해 정서조절에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유다미, 안도희, 2015). 또한 교사의 지지가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노영주, 김순혜, 2016), 학습몰입(이윤순, 2017) 등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학급 담임제로 운영되는 초등학교는 담임교사와 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일과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는 구조로 안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높은 관련성이 나타날 수 있다(한영지 외, 2021). 최근 정현희 외(2018)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 시기 부모애착과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우울 간 초등학교 6학년 시기 교사 및 또래애착이 완전 매개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교사와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청소년의 정서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의 지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지지가 여러 정서행동문제 중에서도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Myers & Pianta(2008)의 연구에서 주의집중의 어려움으로 친구관계, 학교생활 부적응 등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신뢰할 수 있는 교사가 있을 때,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친구 관계도 원활하게 유지하였다. 또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교사로부터의 긍정적인 지지가 ADHD 경향의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개선시키고, 학업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송연주, 2015; 이현지, 2021). 이처럼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청소년이 겪는 주의집중의 어려움으로 야기되는 대인관계와 학업의 어려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체증상에 있어서도 교사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김정민, 장영희(2015)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증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음을 밝혔다. 특히, 윤기봉, 이사라(2017)의 연구에서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신체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연구 결과로 보아 청소년의 신체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에게 교사의 지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신체증상에는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초등학생의 신체증상에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가 영향을 주었다(윤기봉, 이사라, 2017). 이는 초등학교가 학급 담임제로 운영되고 있기에 고등학생 시기에 비해 초등학생에게 교사의 관심과 애정이 신체증상을 감소시킬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체증상에 대한 조기개입에 있어서 교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친구관계

청소년 시기에 형성한 친구관계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으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대인관계이다(구승신 외, 2011). 이 시기에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며(박선희, 2021), 친구관계에서의 정서적지지 경험은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한호순, 2016). 친구관계, 정서문제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모든 학교 급에서 친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정서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세연, 김재철, 2020). 특히, 김성식 외(2022)의 연구 결과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친구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청소년의 행동 및 정서에 영향을 받았으며, 다른 선행 연구 결과에서도 친구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낮춰 문제행동 유발을 억제하는 간접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김정민, 장영희, 2015). 이처럼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경우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동미, 김규태, 2015).

친구관계와 주의집중의 어려움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학교에서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친구관계에서의 갈등과 소외 경험은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등 정서적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선 외, 2014). 이를 통해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친구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가 주의집중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데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도 있었는데, 정성진(2022)의 연구에서 ADHD 성향의 남자 청소년 대상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중재를 통해 삶의 불만족을 예방할 수 있었다. 이는 대인관계에 대한 개입이 ADHD 성향의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대인관계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경험한 친구관계는 주의집중의 어려움으로 겪게 되는 학업열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켰다(김성식 외, 2022). 이처럼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친구관계는 양방향적으로 관련성이 높기에 한 변인의 변화가 다른 변인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친구관계를 형성을 통해 긍정적인 친구의 지지가 제공된다면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낮추고, 학교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된다.

친구관계와 신체증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박희정(2015)의 결과에서 친구의 지지가 신체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증상과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정미선(2021)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할 때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부적응을 겪으며,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위축된 청소년이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해서 신체증상을 경험하였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신체증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두 변인 사이에서의 또래애착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신체증상에 있어서 친구관계가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또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신체증상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연희 외, 2017).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친구관계 경험은 청소년이 성인이 된 이후의 신체증상에까지 영향을 확인한 Landstedt et al(2015)의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 시기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한 편 친구관계와 신체증상에서 유의미

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연구 결과(이선영, 2022; 윤기봉, 이사라, 2017)도 있었다. 이처럼 신체증상에 있어 친구관계의 영향력에 대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선행 연구들이 있기에 신체증상에 대한 친구관계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더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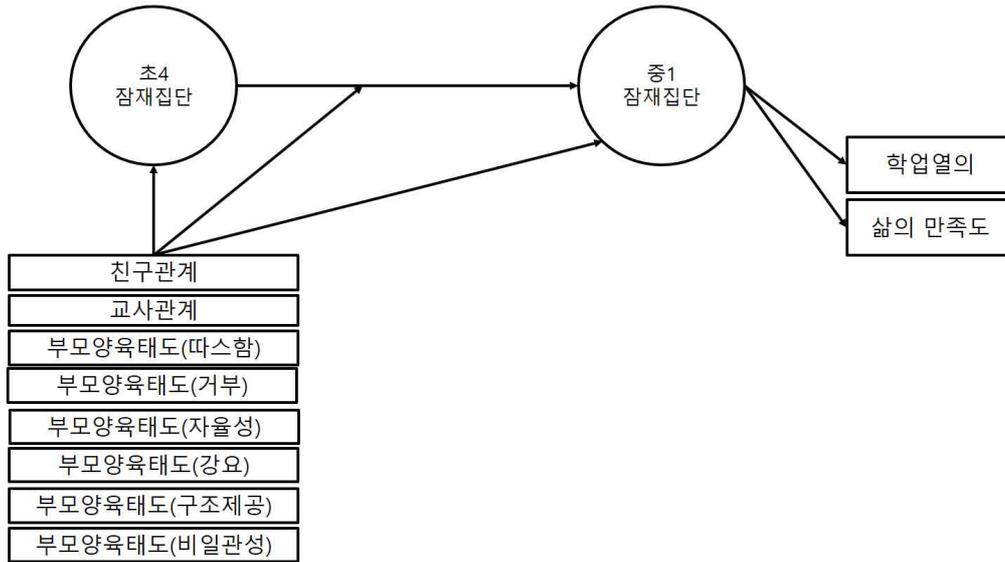
5. 잠재전이분석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은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두 시점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서로 다른 두 시점에서 분석된 잠재 집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초점을 둔 분석방법이다. 이를 위해 잠재전이 분석은 시점에 따라 개인이 다른 잠재유형에 속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Collins & Lanza, 2009).

잠재전이분석은 종단연구의 한 종류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구 대상의 특징을 반복적으로 측정하고 그 측정치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횡단연구에서의 한계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인간발달연구의 목적인 성장과 변화 분석에 적합하다(신태수, 2014). 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두는 인간 중심 분석방법으로 집단 구분을 통해 개인이 어떤 잠재집단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며, 확인된 잠재집단의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에서의 전이확률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ollins & Lanza, 2009). 더 나아가 전이확률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어 인간의 건강한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위한 개입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에 사회과학분야에서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파악하고, 그에 미치는 변인을 고려하고자 하였기에 잠재전이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정서행동문제 잠재집단 분류와 전이에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구체적 모형은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지역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청소년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의 추출이 요구된다. 이에 교육기본통계를 표집틀로 하여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을 구축한 KCYPS 2018 자료가 적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8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신체증상, 주의집중어려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로 초등학교 4학년(1차년도 2018)과 중학교 1학년(4차년도 2021년)의 신체증상, 주의집중어려움과 관련한 문항들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였다. 조사시작 시점에서는 응답자가 초등학교 4학년으로 총 2,607명이었고, 4차년도(2022년)에 중학교 1학년으로 2,275명으로 전체의 87.2%에 해당한다. 본 연구 분석대상은 총 2,15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남자 청소년이 1,083명(50.2%)이고, 여자 청소년 1,071(49.2%)명이다. LTA분석은 Mplus 8.3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alpha=.05$ 로 설정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기존의 연구와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문항을 활용한 척도이다.

가. 주의집중의 어려움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청소년의 정서 행동문제를 자기보고형 평정척도로 개발하고 타당화 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전체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주의집중의 어려움 척도의 문항 수와 문항의 예, 신뢰도는 <표 I -1>와 같다.

<표 I-1> 주의집중의 어려움 문항 및 신뢰도

변인명(문항수)	문항예시	Cronbach α	
		초4 (1차)	중1 (4차)
주의집중의 어려움(7)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연필이나 지우개 등 학용품을 잘 잃어버린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글자를 잘 빠뜨리고 쓰는 편이다.	.803	.851

나. 신체증상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청소년의 정서 행동문제를 자기보고형 평정척도로 개발하고 타당화 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전체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증상의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체증상 척도의 문항 수와 문항의 예, 신뢰도는 <표 I-2>와 같다.

<표 I-2> 신체증상 문항 및 신뢰도

변인명(문항수)	문항예시	Cronbach α	
		초4 (1차)	중1 (4차)
신체증상(8)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 속이 자주 메스거린다. 공부를 하면 배가 아플 때가 있다. 입맛이 없을 때가 있다. 자주 피곤하다.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있다. 자주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840	.871

다. 학업열의, 삶의만족도 척도

학업열의는 이자영과 이상민(2012)이 한국형 학업열의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Diener(1985)의 삶의 만족도척도(SWLS) 변안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척도로 되어 있다. 변인별 문항 수와 문항의 예, 신뢰도는 <표 I-3>와 같다.

<표 I-3>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 문항 및 신뢰도

구분	변인명(문항수)	문항예시	Cronbach α	
			초4 (1차)	중1 (4차)
결과 변인	학업열의(16)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	.923	.924
	삶의 만족도(5)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813	.827

라.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척도

부모양육태도는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개발하고 타당화 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양육태도 척도 24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따스함 4문항, 자율성지지 4문항, 구조제공 4문항 전체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거부 4문항, 강요 4문항, 비밀관성 4문항 전체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관계는 김종백과 김남희(2009)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학생-교사 애착관계척도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친구관계 척도는 배성만, 홍지영 및 현명호(2015)가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를 타당화 한 또래관계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친구관계는 8문항, 부정적 친구관계 5문항 전체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척도로 되어 있다. 변인별 문항 수와 문항의 예, 신뢰도는 <표 I-4>와 같다.

<표 I-4>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문항 및 신뢰도

구분	변인명(문항수)	문항예시	Cronbach α	
			초4 (1차)	중1 (4차)
영향 변인	부모양육태도-따스함(4)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906	.889
	부모양육태도-자율성지지(4)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십니다.	.842	.862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4)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718	.750
	부모양육태도-거부(4)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십니다.	.638	.811
	부모양육태도-강요(4)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십니다.	.713	.746
	부모양육태도-비밀관성(4)	부모님은 나에게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십니다.	.748	.776
	교사관계(14)	선생님은 내가 원할 때마다 항상 나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십니다.	.901	.907
	친구관계(13)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	.810	.835

3. 자료 분석방법

먼저, 분석자료 중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결측값이 존재하는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함으로써 결측값 처리를 하였고, 주요 변수에 대한 상관분석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기 주의집중어려움, 신체증상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전이되었는지, 그리고 잠재집단별 학업열의, 삶의만족도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전이과정에서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을 하였다.

적정 수의 잠재계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보지수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74),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z, 1978), SABIC(Sample-sized-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love, 1987)와 Entropy(Clark, 2010), LMR(Lo-Mendell-Rubin; Lo et al, 2001),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Peel and McLachlan, 2000), 분류율을 종합적으로 활용했는데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는 값이 작을수록 최적의 잠재유형 수를 가진 모형임을 의미한다(Muthén & Shedden, 1999). Entropy는 분류의 정확도를 의미하는데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0.8 이상인 경우 적절한 분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Lubke, Muthén, 2007). 하지만 Entropy는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값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Entropy만으로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Collins & Lanza, 2009). LMR, BLRT는 모형의 비교 검증이 가능한 지표로써 잠재집단의 수가 1개 작은 모형과 비교하여 현재 모형의 적절성을 p값을 활용하여 제시한다. 따라서 p값이 0.05 이하인 경우 잠재집단의 수가 1개 작은 모형보다 현재 모형이 더 적절함을 의미한다(Lo et al, 2001). 마지막으로 분류율은 도출된 잠재집단의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적은 표본으로 구성된 잠재집단이 도출된 모형은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표본의 전체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5% 이내의 표본이 포함된 집단이 도출될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Berlin et al, 2014; Jung & Wickrama, 2008).

Asparouhov와 Muthén(2014)는 공변량이 포함된 잠재전이분석을 시행할 경우 3단계(3-steps) 접근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 없이 공변량이 포함된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할 경우 이전 시점의 잠재집단과 공변량이 이후 시점의 잠재집단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Nylund-Gibson et

al, 2014; 양준영 외, 201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3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여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 접근법은 첫째, 개별 시점에서 잠재계층 분석을 실시하여 가장 적합한 잠재계층 수를 도출하고, 둘째, 개별 시점에 대한 잠재계층 분석에서 도출된 사후확률에 기초하여 개인에게 잠재계층을 할당한다. 셋째, 잠재계층 분석에서 발생한 측정오차를 고정하여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한다(강윤경 외, 2019).

더 나아가 잠재집단별 청소년의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고, 잠재집단의 전이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3단계 접근방법(3-Step approach)에 의해 결합된 모형을 기반으로 종속변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결과변수들을 투입하여 평균을 비교하였다.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3단계 접근방법에 의해 결합된 모형을 기반으로 공변인에 해당하는 동기적 차원의 변수들을 투입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t-1$ 시점의 잠재프로파일을 설명하는 동기적 차원의 영향력, 그리고 $t-1$ 시점이 t 시점으로 전이되는 효과에 대해 동기적 차원의 영향력을 추정하였고, 이때 추정된 효과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식으로 해석하였다(양준영 외, 2019).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과 친구관계, 교사관계, 부모양육태도,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에서는 친구관계 $-.346(p<.01)$, 교사관계 $-.300(p<.01)$, 부모양육태도 $-.294(p<.01) \sim .348(p<.01)$ 로 나타났으며, 학업열의 $-.127(p<.01)$, 삶의 만족도 $-.079(p<.01)$ 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신체증상에서는 친구관계 $-.294(p<.01)$, 교사관계 $-.203(p<.01)$, 부모양육태도 $-.290(p<.01) \sim .367(p<.01)$ 로 나타났으며, 학업열의 $-.083(p<.01)$, 삶의 만족도 $-.067(p<.01)$ 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과 친구관계, 교사관계, 부모양육태도,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에서는 친구관계 $-.064(p<.01)$, 교사관계 $-.096(p<.01)$, 부모양육태도 $-.069(p<.01) \sim .087(p<.01)$ 로 나타났으며, 학업열의 $-.354(p<.01)$, 삶의 만족도 $-.203(p<.01)$ 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신체증상에서는 친구관계 $-.051(p<.05)$, 교사관계 $-.053(p<.05)$, 부모양육태도 $-.053(p<.01) \sim .061(p<.01)$ 로 나타났으며, 학업열의 $-.177(p<.01)$, 삶의 만족도 $-.289(p<.01)$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왜도는 2.00 이하이고, 첨도는 7.00 이하이면 정상분포 곡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Hancock & Mueller, 2013).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는 $-1.158 \sim .847$ 으로 나타났고, 첨도는 $-.325 \sim .991$ 로 나타나 정규분포곡선의 기본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공차한계가 .10 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가 10 이하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Grimm & Yarnold, 2000). 본 연구에서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429 \sim .751$ 로, 분산팽창계수는 $1.331 \sim 2.329$ 로 나타나 독립변인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는 <표 I-5>에 제시되어 있다.

<표 I -5>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주의 집중	신체 증상	부모 따스함	부모 자율성	부모 구조	부모 거부	부모 강요	부모 비일관성	교사 관계	친구 관계	주의 집중	신체 증상	학업 열의	삶의 만족도
주의집중(초4)	1													
신체증상(초4)	.414**	1												
부모-따스함	-.266**	-.290**	1											
부모-자율성	-.294**	-.283**	.693**	1										
부모-구조	-.164**	-.182**	.514**	.540**	1									
부모-거부	.293**	.367**	-.511**	-.483**	-.315**	1								
부모-강요	.309**	.238**	-.283**	-.329**	-.174**	.409**	1							
부모-비일관성	.348**	.325**	-.393**	-.448**	-.327**	.458**	.528**	1						
교사관계	-.300**	-.203**	.365**	.387**	.330**	-.216**	-.167**	-.275**	1					
친구관계	-.346**	-.294**	.349**	.358**	.348**	-.297**	-.212**	-.282**	.420**	1				
주의집중(중1)	.180**	.070**	-.066**	-.069**	-.059**	.075**	.073**	.087**	-.096**	-.064**	1			
신체증상(중1)	.079**	.092**	-.052*	-.053*	-.044*	.046*	.013	.061**	-.053*	-.051*	.475**	1		
학업열의	-.127**	-.083**	.076**	.092**	.072**	-.055*	-.046*	-.070**	.147**	.097**	-.354**	-.177**	1	
삶의 만족도	-.079**	-.067**	.065**	.063**	.026	-.055*	-.056**	-.059**	.082**	.068**	-.203**	-.289**	.448**	1
평균	2.1102	1.6963	3.5886	3.5034	3.3095	1.6257	2.1147	1.8765	2.9995	3.0699	2.1102	1.7762	2.5055	2.7496
표준편차	.58100	.57758	.52267	.52078	.51501	.52676	.64106	.60715	.48345	.42228	.58100	.57386	.52295	.54248
왜도	.152	.672	-1.158	-.915	-.514	.847	.251	.354	-.281	-.102	.093	.534	.050	-.207
첨도	-.250	-.113	.899	.703	.445	.991	-.163	-.163	.696	.008	-.227	-.096	.149	.565

** p<.01 * p<.05

2. 초등학교 4학년 잠재집단 분류

가. 초등학교 4학년 잠재집단 분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정보지수(AIC, BIC, SABIC), 통계적 검증(LMR, BLRT), 분류의 질(Entropy), 잠재집단 비율,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Collins, Lanza, 2009). 정보지수는 작은 값을 가진 모형을 선택하고, 통계적 검증은 k 잠재집단 모형의 P-Value로 k-1 잠재집단모형이 기각되는지 평가한다. 분류의 질은 하나의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로 높을수록 분류의 질(0.4=low, 0.6=medium, 0.8=high)이 좋다. 잠재집단의 비율이 5%미만이거나 25명 이하이면 우연히 발생한 잠재집단일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Berlin et al,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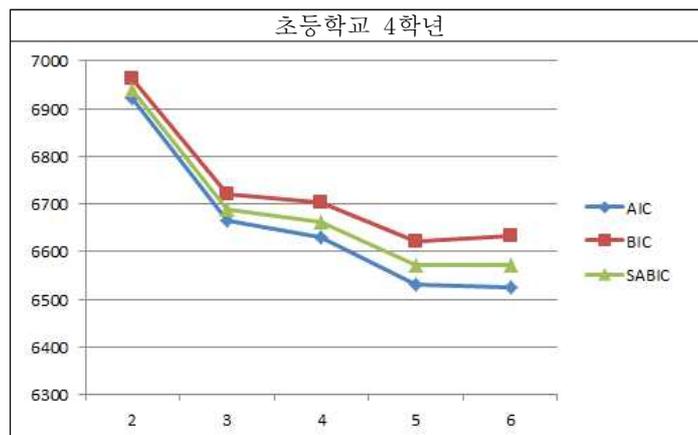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고자 초등학교 4학년(1차년도) 잠재집단 수를 증가시키며 적합도를 비교하였고, 결과는 <표 I -6>와 같다.

<표 I -6> 초등학교 4학년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분류

분류기준		초등학교 4학년				
		2	3	4	5	6
정보 지수	AIC	6923.492	6664.803	6630.239	6530.558	6524.174
	BIC	6963.217	6721.553	6704.015	6621.359	6632.001
	SABIC	6940.977	6689.782	6662.712	6570.525	6571.636
분류 의질	Entropy	0.699	0.831	0.727	0.749	0.744
모형 비교 검증	LMR (p)	518.459 (0.0000)	253.672 (0.0000)	38.875 (0.0032)	35.868 (0.0117)	-22.565 (0.2784)
	BLRT (p)	540.976 (0.0000)	264.689 (0.0000)	40.564 (0.0000)	37.425 (0.0000)	-23.545 (1.0000)
분 류 율	class1	0.62425	0.53351	0.42058	0.39316	0.13419
	class2	0.37575	0.39289	0.38366	0.30435	0.00311
	class3		0.07359	0.12376	0.08844	0.30442
	class4			0.07200	0.17793	0.03577
	class5				0.03612	0.34679
	class6					0.17573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정보지수(AIC, BIC, SABIC)는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AIC, BIC, SABIC 감소하다가, 잠재집단이 6개가 될 때 BIC, SABIC는 다소 증가하였다. 하지만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AIC, BIC, SABIC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래프를 그려서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지점을 확인하여 잠재집단 3개일 때가 적합하다고 보았다(Nylund-Gibson, & Choi, 2018). LMR과 BLRT은 잠재집단 6개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는 잠재집단의 수가 3개일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합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잠재집단을 3개 집단으로 결정하였다.



<그림 II-2> 초등학교 4학년 적합도 정보지수(AIC, BIC, SABIC) 그래프

나. 초등학교 4학년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잠재집단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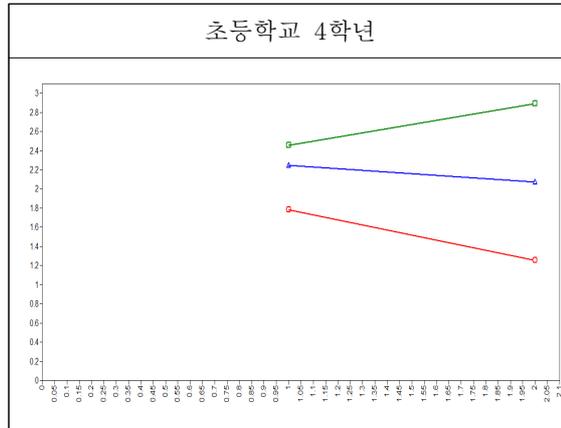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3개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으면 구체적인 결과는 <표 I-7>와 같다.

<표 I-7> 초등학교 4학년 잠재집단별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평균

	T1(초4)					
	c3		c2		c1	
	상집단		중집단		하집단	
	(159명, 7.3%)		(846명, 39.3%)		(1149명, 53.4%)	
	M	SD	M	SD	M	SD
주의집중 어려움	0.771	0.805	0.404	0.805	-0.403	0.805
신체증상	2.071	0.206	0.652	0.206	-0.764	0.206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잠재집단 3은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주의집중의 어려움, 신체증상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 상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1은 53.4%로 주의집중의 어려움, 신체증상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나 하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2는 39.3%로 하위요인이 상집단보다 낮고, 하집단보다 높아서 중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잠재집단은 [그림 II-3]과 같다.



<그림 II-3> 초등학교 4학년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잠재집단 그래프

다. 초등학교 4학년 잠재집단 개인차 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의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의 개인차를 부모양육태도(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4학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8>와 같다.

<표 I-8>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부모양육태도, 교사, 친구 변인의 영향

	초등학교 4학년 중집단(1)				초등학교 4학년 하집단(3)			
	B	SE	p	승산비	B	SE	p	승산비
따스함	0.458	0.271	0.090	0.863	0.606	0.277	0.028	0.545
거부	-0.641	0.212	0.003	2.720	-1.641	0.237	0.000	5.162
자율성	-0.149	0.283	0.600	0.943	-0.090	0.290	0.758	1.094
강요	-0.356	0.207	0.086	0.997	-0.353	0.209	0.091	1.424
구조제공	-0.333	0.267	0.212	1.117	-0.444	0.270	0.099	1.559
비일관성	-0.199	0.237	0.402	1.910	-0.846	0.242	0.000	2.330
교사관계	-0.187	0.279	0.503	0.637	0.264	0.283	0.352	0.768
친구관계	0.455	0.364	0.212	0.397	1.378	0.360	0.000	0.252

***참조집단: 초등학교 4학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2)

초등학교 4학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했을 때, 중집단에서 거부(B=-.641, $p < .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거부적일수록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태도 거부의 의미는 자녀를 불필요한 존재, 방해가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초등학교 4학년 시기 거부적이지 않은 부모양육태도를 경험한 청소년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덜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초등학교 4학년 상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했을 때, 하집단에서 친구관계($B=1.378$, $p<.01$), 따스함($B=.606$, $p<.05$), 거부($B=-1.641$, $p<.01$), 비밀관성($B=-.846$, $p<.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친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부모양육태도가 따뜻할수록 상집단에 비해 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양육태도가 거부적이고, 비밀관적일수록 상집단에 비해 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이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 따뜻하고, 거부적이지 않고, 비밀관적이지 않은 부모양육태도를 경험한 청소년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덜 경험한다는 의미이며,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경험한 청소년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덜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3. 중학교 1학년 잠재집단 분류

가. 중학교 1학년 잠재집단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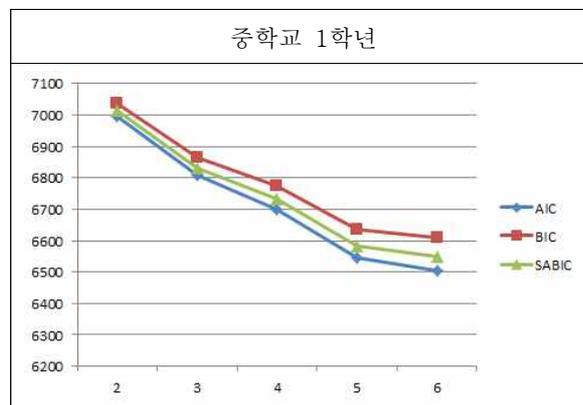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정보지수(AIC, BIC, SABIC), 통계적 검증(LMR, BLRT), 분류의 질(Entropy), 잠재집단 비율,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Collins, Lanza, 2009). 정보지수는 작은 값을 가진 모형을 선택하고, 통계적 검증은 k 잠재집단 모형의 P-Value로 k-1 잠재집단모형이 기각되는지 평가한다. 분류의 질은 하나의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로 높을수록 분류의 질(0.4=low, 0.6=medium, 0.8=high)이 좋다. 잠재집단의 비율이 5%미만이거나 25명 이하이면 우연히 발생한 잠재집단일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Berlin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고자 중학교 1학년(4차년도) 잠재집단 수를 증가시키며 적합도를 비교하였고, 결과는 <표 I-9>와 같다.

<표 I -9> 중학교 1학년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분류

분류기준		중학교 1학년				
		2	3	4	5	6
정보 지수	AIC	6996.344	6807.292	6700.137	6544.918	6502.921
	BIC	7036.069	6864.042	6773.913	6635.719	6610.747
	SABIC	7013.829	6832.271	6732.611	6584.885	6550.382
분류 의질	Entropy	0.579	0.741	0.794	0.854	0.833
모형 비교 검증	LMR	490.378	186.933	108.444	154.509	45.999
	(p)	(0.0000)	(0.0023)	(0.0002)	(0.0005)	(0.0001)
	BLRT	511.676	195.052	113.154	161.220	47.997
	(p)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분 류 율	class1	0.54040	0.44674	0.16805	0.27257	0.04569
	class2	0.45960	0.45477	0.01635	0.27599	0.23444
	class3		0.09849	0.40641	0.29538	0.29413
	class4			0.40919	0.13816	0.01793
	class5				0.01790	0.26972
	class6					0.13808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정보지수(AIC, BIC, SABIC)는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AIC, BIC, SABIC 계속 감소하였고, LMR, BLRT는 모든 잠재집단의 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ntropy는 잠재집단의 수가 5개일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류율을 살펴보면 4개의 잠재집단에 집단 2의 비율이 0.016%로 낮게 나타났으며, 5개, 6개의 잠재집단에서도 낮은 비율의 잠재집단이 나타났다. 한 집단의 사례수가 25명 이상이고, 비율로는 전체집단의 5%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보아 4개, 5개, 6개의 잠재집단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Berlin et al, 2014; Jung & Wickrama, 2008). 뿐만 아니라 잠재집단 수가 4개 이상이 되는 잠재프로파일의 양상을 살펴봤을 때 3개 집단으로 분류된 양상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잠재집단을 3개 집단으로 결정하였다.



<그림 II -4> 중학교 1학년 적합도 정보지수(AIC, BIC, SABIC) 그래프

나. 중학교 1학년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잠재집단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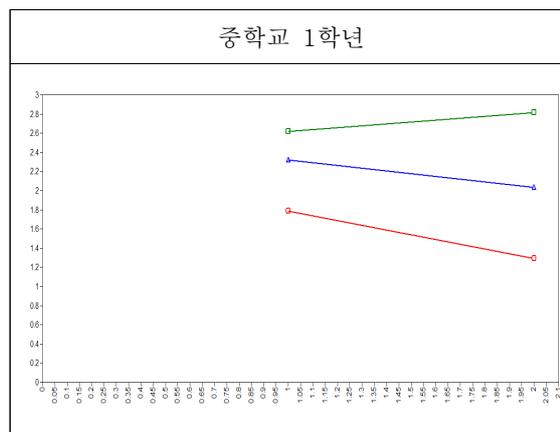
중학교 1학년 시기의 3개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으면 구체적인 결과는 <표 I -10>와 같다.

<표 I -10> 중학교 1학년 잠재집단별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평균

	T2(중1)					
	c3		c2		c1	
	상집단		중집단		하집단	
	(212명, 9.8%)		(980명, 45.4%)		(962명, 44.6%)	
	M	SD	M	SD	M	SD
주의집중 어려움	0.877	0.083	0.361	0.725	-0.558	0.725
신체증상	1.810	0.263	0.447	0.725	-0.850	0.263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잠재집단 3은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주의집중의 어려움, 신체증상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 상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1은 45.4%로 주의집중의 어려움, 신체증상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나 하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2는 44.6%로 하위요인이 상집단보다 낮고, 하집단보다 높아서 중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중학교 1학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잠재집단은 [그림 II-5]과 같다.



<그림 II-5> 중학교 1학년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잠재집단 그래프

다. 중학교 1학년 잠재집단 개인차 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의 개인차를 부모양육태도(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을 중심으로 중학교 1학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11>와 같다.

<표 I-11> 중학교 1학년 시기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부모양육태도, 교사, 친구 변인의 영향

	중학교 1학년 중집단(2)				중학교 1학년 하집단(1)			
	B	SE	p	승산비	B	SE	p	승산비
따스함	0.570	0.289	0.048	1.769	0.422	0.259	0.103	1.529
거부	-0.477	0.220	0.030	0.621	-0.638	0.212	0.003	0.528
자율성	-0.528	0.304	0.083	0.590	-0.486	0.283	0.086	0.615
강요	0.192	0.223	0.390	1.212	0.213	0.200	0.287	1.238
구조제공	0.010	0.264	0.968	1.010	0.149	0.239	0.533	1.160
비일관성	-0.322	0.248	0.194	0.724	-0.386	0.224	0.085	0.680
교사관계	-0.023	0.239	0.925	0.978	0.227	0.224	0.313	1.254
친구관계	-0.430	0.301	0.153	0.651	-0.084	0.274	0.760	0.920

***참조집단: 중학교 1학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

중학교 1학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했을 때, 중집단에서 따스함($B=0.570$, $p<.05$), 거부($B=-.477$, $p<.05$)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따뜻할수록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양육태도가 거부적일수록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중학교 1학년 시기 따뜻하고, 거부적이지 않은 부모양육태도를 경험한 청소년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덜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하집단에서는 거부($B=-.638$, $p<.05$)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거부적일수록 상집단에 비해 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중학교 1학년 시기 거부적이지 않은 부모양육태도를 경험한 청소년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덜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라. 중학교 1학년 잠재집단 전이에 따른 결과 양상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유형별 우울, 사회적 위축,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결과는 <표 I-12>와 같다.

<표 I -12> 중학교 1학년 시기 잠재집단별 결과 변인의 평균

	잠재계층별 결과변인 평균값			Wald Test of Parameter Constraints		
	상집단(M2)	중집단(M3)	하집단(M1)	M1-M2	M1-M3	M2-M3
학업열의	-0.228	-0.236	0.293	35.946***	83.687***	0.007
삶의만족도	-0.507	-0.242	0.360	60.285***	126.610***	4.687*

중학교 1학년 시기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에서의 결과변인은 학업열의(-0.228), 삶의 만족도(-0.507)로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낮으며,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시기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 하집단에서의 결과변인은 학업열의(0.293), 삶의 만족도(0.360)로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높으며,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단, 학업열의는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0.228)과 중집단(-0.236)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중집단 이상에 속할 경우 학업열의를 유지하기 어렵고,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에만 학업열의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 외에는 잠재집단별 학업 열의, 삶의 만족도의 평균값 비교를 했을 때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4. 잠재집단 전이 양상 및 개인차 분석

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전이 양상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신체증상과 주의집중의 어려움 잠재집단이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신체증상과 주의집중의 어려움 잠재집단으로 어떻게 전이되는지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I -13>와 같다.

<표 I -13>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전이 양상

		중학교 1학년(4차)		
		상집단 c3(212명)	중집단 c2(980명)	하집단 c1(962명)
초등학교 4학년 (1차)	상집단	32명	59명	68명
	c3(159명)	20.3%	37.1%	42.6%
	중집단	84명	439명	323명
	c2(846명)	9.9%	51.9%	38.2%
	하집단	97명	481명	571명
	c1(1149명)	8.4%	41.9%	49.7%

초등학교 4학년의 상집단(159명)에서 중학교 1학년의 상집단으로 20.3%, 중집단으로 37.1%, 하집단으로 42.6%로 전이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에 속한 청소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20.3%는 증상을 유지하였으며, 79.7%는 증상이 감소하였다는 의미이다.

초등학교 4학년의 중집단(846명)에서 중학교 1학년의 상집단으로 9.9%, 중집단으로 51.9%, 하집단으로 38.2%로 전이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중집단에 속한 청소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51.9%는 증상을 유지하였으며, 38.2%는 증상이 감소되었고, 9.9%는 증상이 증가하였다는 의미이다.

초등학교 4학년의 하집단(1,149명)에서 중학교 1학년의 상집단으로 8.4%, 중집단으로 41.9%, 하집단으로 49.7%로 전이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하집단에 속한 청소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49.7%는 증상을 유지하였고, 50.3%는 증상이 증가하였다는 의미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증가한 청소년은 662명(30.7%)이며, 유지한 청소년은 1,042명(48.4%)이며, 감소된 청소년은 450명(20.9%)로 나타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되는 경우보다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나. 잠재집단 전이의 개인차 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전이에 부모양육태도(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을 중심으로 중학교 1학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14>와 같다.

<표 I-14> 잠재집단 전이에 부모양육태도, 교사, 친구 변인의 영향

영향요인	중학교 1학년 하집단(967명)				중학교 1학년 중집단(995명)				
	B	SE	p	승산비	B	SE	p	승산비	
초등 4학년 하집단 (852명)	따스함	0.082	0.232	0.722	1.086	-0.048	0.255	0.852	0.953
	거부	-0.009	0.232	0.968	0.991	-0.296	0.273	0.278	0.743
	자율성	0.022	0.228	0.922	1.023	0.006	0.263	0.981	1.006
	강요	0.256	0.221	0.247	1.292	0.483	0.248	0.052	1.621
	구조제공	-0.344	0.245	0.16	0.709	-0.396	0.254	0.12	0.673
	비일관성	-0.293	0.266	0.271	0.746	-0.362	0.284	0.202	0.696
	교사관계	0.257	0.164	0.117	1.293	0.37	0.183	0.044	1.448
친구관계	-0.337	0.249	0.175	0.714	-0.431	0.295	0.145	0.65	
초등 4학년 중집단 (1160명)	따스함	0.295	0.234	0.207	1.343	0.625	0.287	0.029	1.868
	거부	-0.298	0.171	0.082	0.742	-0.256	0.185	0.167	0.774
	자율성	-0.358	0.293	0.222	0.699	-0.386	0.327	0.238	0.68
	강요	0.307	0.228	0.178	1.36	0.333	0.252	0.185	1.396
	구조제공	0.47	0.163	0.004	1.599	0.453	0.174	0.009	1.574
	비일관성	-0.196	0.239	0.412	0.822	-0.17	0.268	0.526	0.844
	교사관계	0.173	0.159	0.277	1.188	0.013	0.168	0.939	1.013
친구관계	-0.163	0.18	0.368	0.85	-0.316	0.202	0.118	0.729	
초등 4학년 상집단 (142명)	따스함	-0.146	0.774	0.851	0.864	0.054	1.21	0.965	1.055
	거부	-0.569	0.963	0.555	0.566	0.552	1.346	0.682	1.736
	자율성	-0.193	0.978	0.844	0.825	-0.273	1.036	0.792	0.761
	강요	-0.059	0.518	0.909	0.943	-0.057	0.956	0.952	0.944
	구조제공	0.587	1.652	0.722	1.799	0.564	1.313	0.668	1.757
	비일관성	-0.244	1.058	0.818	0.784	0.13	0.753	0.863	1.138
	교사관계	-1.534	2.171	0.48	0.216	-0.412	1.696	0.808	0.662
친구관계	0.451	0.674	0.503	1.57	0.496	0.799	0.534	1.643	

***참조집단: 중학교 1학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192명)

초등학교 4학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하집단이 중학교 1학년으로 전이되는데 있어 중학교 1학년 상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했을 때 중집단으로의 전이에 있어 교사관계(B=.37, $p<.05$)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하집단에 속한 청소년에게 교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초등학교 4학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중집단이 중학교 1학년으로 전이되는데 있어 중학교 1학년 상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했을 때 하집단으로의 전이에 있어 구조제공(B=.47, $p<.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중집단에 속한 청소년에게 부모가 구조를 제공할수록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상집단에 비해 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중집단으로의 전이에 있어 부모양육태도 따스함($B=0.625, p<.05$)과, 구조제공($B=0.453, p<.01$)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중집단에 속한 청소년에게 따뜻하고, 구조를 제공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있을수록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초등학교 4학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이 중학교 1학년으로 전이되는데 있어 중학교 1학년 상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했을 때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은 없었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상집단에 속한 청소년에게는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의미이다.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중학교 1학년 시기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유형 분류와 잠재집단 분류에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의 영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중학교 1학년 잠재집단별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의 전이확률을 알아보고, 전이에 미치는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의 영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유형 및 특성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유형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는 3개의 집단(상집단, 중집단, 하집단)으로 도출되었다. 중학교 1학년 시기에도 3개의 집단(상집단, 중집단, 하집단)으로 도출되었다. 잠재집단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은 청소년 대상으로 정서문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한 김세연, 김재철(2020) 및 허인화(202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나 외현화 문제나 주의집중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정서행동문제 구성요인의 차이로 해석되는데, 김세연과 김재철(2020)의 연구에서 정서행동문제는 주의집중,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로 구성되어 있었다. 허인화(2022)의 연구에서도 정서행동문제를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로 다양한 변인들이 구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 결과의 잠재집단 구성이 다른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서 청소년 시기의 정서행동문제 잠재집단은 3~4개 정도로 분류되며 정서행동문제가 낮은 청소년부터 높은 청소년으로 상이한 정서행동문제 잠재집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 두 개의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독특한 잠재집단 도출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잠재집단 분류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하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53.4%)로 나타났으며, 중집단(39.3%), 상집단(7.3%)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에서는 중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45.4%)로 나타났으며, 하집단(44.6%), 상집단(9.8%)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행동평균(46%), 정서행동안정(28.8%), 내면화 대비 외현화문제(12.7%), 정서행동문제(12.4%) 순으로 나타났다(김세연, 김재철, 2020), 중학교 1학년 대상 잠재집단 분류에서 정서문제 중

집단(43.86%), 집중부족형 집단(23.28%), 정서문제 하집단(23.02%), 정서문제 상집단(9.83%) 순으로 나타났다(허인화, 202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 정서행동평균과 안정이 정서행동문제보다 분류율이 높았던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중집단, 하집단이 상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어려움을 많이 겪는 청소년보다 안정적으로 잘 지내거나 보통 수준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중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의 증상이 완화되고, 하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의 증상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에서 잠재집단별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행동문제 하위요인 간의 정적상관이 있다는 연구와도 관련된 결과라 할 수 있다(배장섭, 2017). 본 연구에서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의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난 결과는 백승영, 이승희(2014)의 연구결과에서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이 동시에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하면서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의 공병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은 우울, 불안 등 다른 심리적 어려움과도 높은 공병률을 나타내는 변인이다(하미영, 정현희, 2021; 박소연, 2021). 이러한 결과는 하나의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의 경우 다른 정서행동문제들과의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반적인 심리평가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서행동문제 하집단이 감소한 것에 비해(53.4%→44.6%) 중집단(39.3%→45.4%), 상집단(7.3%→9.8%)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에 비해 중학교 1학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강지현(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정서행동문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를 본 연구가 뒷받침하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경우,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나. 초등학교 4학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개인차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분류에 미치는 개인차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부모양육태도가 거부적일수록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그

리고 부모양육태도가 따뜻할수록 상집단에 비해 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부모양육태도가 거부적이거나 비일관적일수록 상집단에 비해 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태도에서 거부의 의미는 자녀를 불필요한 존재, 방해가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즉,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낄수록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허영재, 김희화(2018)의 연구 결과에서도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경험회피와 걱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회피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자신의 신체감각을 회피하게 하고, 걱정은 부정적인 사고와 심상으로 걱정이 지나치면 주의집중을 잘 못하게 되어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거부적 양육태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에 부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거부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경험하는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가 주의해야 하는 부모양육태도에 대해 알려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태도 따스함은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육태도는 자녀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도록 돕고, 부모와 높은 친밀감을 갖게 한다(노경선 외, 2003). 그리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에게 부모는 안전기지로서 기능하며,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을 때에도 이러한 애착 체계가 다시 활성화되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정현주, 2012).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가영희 외(2008)의 연구 결과에서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부모로부터 사랑, 관심을 받았던 초등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였다(정미영, 문혁준, 2007). 뿐만 아니라 김진아, 한귀례(2014)의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 중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정서문제와 가장 높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따스한 양육태도는 청소년 시기 다양한 발달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본 연구에서도 따스한 부모양육태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였다.

비일관성은 부모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규칙을 자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태도는 청소년시기의 자녀가 가치관 혼란, 타인 불신, 불안, 학업집중력 저하 등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한다(기쁘다, 2021). 이는 김명화 외(2022)의 연구에서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주의집중과 부적 상관

을 나타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최진(2016)의 연구에 따르면, 부의 양육태도는 긍정적일지라도 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태도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불일치할 경우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민하영, 2009)로 보아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가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태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서도 구체적으로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비일관적 양육태도를 가졌다면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겪는 청소년의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있어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요구되는 부모양육태도를 알 수 있었는데, 즉,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따뜻함이 요구되며, 거부적이지 않고, 일관적인 양육태도가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친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에 비해 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친구관계는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고, 친구들과 관계가 좋은 것으로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이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수록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낮다는 의미이다. 이는 장희선(2023)의 연구에서 초등학생 대상 정서행동문제에 친구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자료(KCYPS, 2013)를 활용한 최연희 외(2017)의 연구에서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신체증상이 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친구관계가 신체증상과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긍정적인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서도 구체적으로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허묘연, 옥정(2013)의 연구에서 부모의 합리적인 설명을 많이 지각하더라도 또래애착이 안정적이지 않은 청소년은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거의 감소하지 않았던 결과를 통해 정서문제에서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에 더하여 건강한 친구관계를 형성해갈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사관계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따른 잠재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급단위로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시기의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선행연구(김정민, 송수지, 2014; 윤기봉, 이사라, 2017)와 상반되는 결과였다. 이는 이대식(2003)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학교와 교사의 상황을 이해해볼 수 있다. 대다수의 교사들(98.7%)은 초등학생의 주의 산만한 행동으로 수업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은 정서행동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전문가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지도하기에 학생의 정서행동문제가 심각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교사들이 지도하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원령(2015)의 정서행동문제를 겪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교사의 지지가 여전히 학교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정서행동문제에 있어 교사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있어 교사관계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는 청소년의 심각해진 정서행동문제와 정서행동문제를 겪는 청소년에게 개입하기보다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학교 현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이 아니더라도 교사의 관심과 지지가 유의미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 중학교 1학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개인차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개인차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부모양육태도가 따뜻할수록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부모양육태도가 거부적일수록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 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따뜻할수록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낮은 집단에 속하고, 부모양육태도가 거부적일수록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잠재집단 분류와 동일한 결과이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양육태도가 정서문제와 관련성을 보고하였는데, 허인화(2022)의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가 정서문제 잠재집단 분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최정아(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애착 수준이 높다고 인식 할수록 정서문제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홍원준(2020)의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가 거부, 강요적일수록 부정적인 정서문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따스하고, 거부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정서문제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정서문제 중에서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부모양육태도를 알 수 있었다. 이에 중학교 1학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개인 심리치료 접근뿐만 아니라 가정 환경적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분류에서 유의미하였으나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중학교 1학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분류에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정서문제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한 홍원준(2020)의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의 비일관성이 높을수록 건강한 집단보다 다른 정서행동문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였다. 홍원준(2020)의 연구에서는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을 포함한 정서행동문제를 다루었으며, 잠재집단 분류에서도 건강한 집단, 주의집중문제 집단, 중간수준의 정서행동문제 집단, 우울중심의 높은 정서행동문제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연령이 같더라도 잠재집단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부모양육태도의 영향력에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중학교 1학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분류에서도 유의미한 부모양육태도가 다르게 나타난 결과로 보아 청소년 시기에 따라 요구되는 부모양육태도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녀가 정서행동문제를 경험한다면, 부모는 자녀가 겪는 정서행동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와 연령에 따라 요구되는 부모양육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울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친구관계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나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 이는 노영주, 김순혜(2016)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친구지지를 비교한 결과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친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정서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정민, 장영희, 2015; 박희정, 2015) 등과 차이가 있었다. 반면 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이선영, 2022; 윤기봉 외,

2017)에서는 친구관계와 신체증상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였다. 이로 보아 연구대상과 연구모형에 따라 친구관계의 영향력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학생 시기에는 초등학생에 비해 부모보다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권오용, 이수진, 2018). 이때 친밀한 친구관계가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친구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 일탈행동도 나타나기도 했다(이동엽, 2017). 이처럼 중학교 1학년 시기는 초등학생에 비해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는 시기로 정서행동문제를 경험하는 또래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지게 되고(강정애, 2016),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친구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또래들의 가치와 행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 특성으로 인해 문제 행동에 대한 모방행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Giordano, 2003). 그리고 본 연구대상자를 연구한 시점을 살펴보면, 2018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이 된 시점은 2021년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었던 2020년을 거쳐 지나왔다. 코로나19 이후의 학교생활에 대해 연구한 이정연 외(2020)의 연구 결과에서 청소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친구관계로 나타났다. 그 뿐 아니라 김현령, 정애경(2022)의 또래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는 코로나 상황 이후 예전보다 또래 간 유대감이 약해졌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라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본 연구에서의 중학교 1학년의 친구관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 교사, 친구 관계 중에서 부모양육태도가 유일하게 의미가 있었다. 이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있어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다.

라. 잠재집단 유형별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잠재집단 유형에 따른 정신건강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집단 유형별로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 결과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많이 겪을수록 학업에 대한 열의가 낮고, 삶의 만족도가 낮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많이 겪을수록 학업에서의 어려움과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삶의 만족도가 낮아져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학업열의는 상집단과 중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하집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중집단 이상에 속할 경우 학업열의를 유지하기 어렵고,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에만 학업열의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청소년의 건강한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낮추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지만 청소년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학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최대한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삶의 만족도는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낮은 집단과 중간, 높은 집단과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중학생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해 연구한 홍원준(2020)의 연구에서는 대다수 잠재집단별 삶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났지만 주의집중문제 집단과 건강한 집단에서는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의집중 문제만을 본다면 건강한 집단과 삶의 만족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동시에 겪는 집단일 경우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낮게 겪는 집단과는 삶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의집중의 어려움이나 신체증상을 단독으로 경험하는 청소년과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동시에 경험하는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다른 경험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의집중의 어려움만 경험하는 청소년보다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동시에 경험하는 청소년일 경우 더 심리적 어려움이 높을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그렇기에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동시에 경험하는 청소년에 대한 개입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마. 잠재집단 전이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잠재집단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전이확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증가, 유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상이 증가, 유지, 감소된다는 것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은 변화 가능한 증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잠재전이 분석을 한 허인화(2022)의 연구에서도 정서행동문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 유지, 감소되는

것과 유사하다. 이처럼 청소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신체증상 등 정서행동문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자극은 제한하고, 긍정적인 자극은 제공한다면 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이확률 결과를 살펴보면,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중집단이 전이확률과 안정성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이양상을 유지, 증가, 감소로 재구성하여 살펴보면,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유지한 청소년은 1,042명(48.4%), 증상이 증가한 청소년은 662명(30.7%)이며, 증상이 감소한 청소년은 450명(20.9%) 순으로 나타났다.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되는 경우보다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시기적인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 4학년에 비해 중학교 1학년은 사춘기 절정에 해당하는 시기로 급격한 신체적, 인지적 변화와 감정기복과 예민함 등 정서적 혼란감을 더 경험하는 시기이다(이수경, 2015). 또한 강정애(2016)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에게서 학업스트레스, 친구관계 갈등, 심리적 불안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극이 높아지기에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시기에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감소하기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정아(2017)의 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 시기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정서문제 잠재집단 전이확률이 고수준 집단, 중수준, 안정 집단은 유지하는 확률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한정아(2017)의 연구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집단과 사회적 위축 집단은 저수준 집단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하나의 정서행동문제가 보일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낮아질 수 있으나 정서행동문제가 중복으로 나타난 고수준, 중수준 집단의 경우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기보다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유지 또는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강문선, 임효진, 2021).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잠재집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낮추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바.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전이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전이 영향에 있어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초등학

교 4학년 시기에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따른 잠재집단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중학교 1학년 상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다른 잠재집단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하집단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교사관계는 청소년이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상의하고, 교사로부터 자신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관계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분류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으나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하집단에 속한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상집단이 아닌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즉각적인 효과가 없어 간과할 수도 있는 요인이나 이후 중학생이 되었을 때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본 연구를 통해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거의 겪지 않았던 건강한 청소년에게는 유의미한 영향이 있으며, 중학생이 된 이후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막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대식(2003)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해 개입하기 어려워하는 교사의 태도가 정서행동문제를 겪는 청소년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건강한 청소년에게는 교사의 지지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문적인 개입을 연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사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함을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초등학교 4학년 중집단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가 구조제공적일수록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상집단에 비해 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구조를 제공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보통 수준 경험하는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증상이 심각해지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태도에서의 구조제공 변인은 자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안내하거나 설명해주는 부모의 자세를 나타낸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구조제공은 자녀가 자기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며, 부모가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경우에는 높은 자존감과 낮은 수준의 우울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김명숙, 2019; 조은혜 외, 2022). 이처럼 부모의 구조제공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낮추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이었으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보통 정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는 부모의 적절한 도움이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보통 수준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겪는 자녀에게 증상에 대한 설명과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의 양육태도는 추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감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겪는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증상에 대한 이해와 가이드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중집단 결과, 부모양육태도가 따뜻하고, 구조제공적일수록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구조를 제공하는 부모양육태도는 앞서 초등학교 4학년 중집단이 중학생이 될 때 상집단에 비해 하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였던 변인이었다. 청소년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부모양육태도가 구조제공적일수록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최소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따뜻한 부모양육태도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는 상집단에 비해 하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었다. 중학교 1학년 시기에도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준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보통 수준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에게 부모님의 따뜻한 양육태도는 해당 시기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상집단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높게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높게 경험하는 청소년에게는 긍정적 관계 경험만으로는 변화에 한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높다고 인식될 경우, 정확한 평가와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중학교 1학년 시기 각각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함께 고려하여 잠재집단을 분류하였으며, 분류에 있어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시기 잠재집단별 학업열의와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잠재집단의 전이 양상과 전이에 있어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함께 살펴본 연구로서 학교 및 기관 등 사회에서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시기와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 잠재집단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두 변인이 동시에 높거나 낮게 나타나 공병 가능성이 높다는 것, 상집단, 중집단, 하집단으로 잠재집단이 구분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상이 증가, 유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변화가능한 증상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의 잠재집단별로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를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보통 이상 경험할 경우 학업열의가 낮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의집중의 어려움만 겪는 청소년에 비해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동시에 경험하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낮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동시에 경험하는 청소년이 단독으로 경험하는 청소년과 심리적 어려움이 다를 수 있기에 다른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별 학업열의와 삶의 만족도를 비교함으로써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와 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셋째,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에 대한 시기별, 증상수준별 구체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사관계, 친구관계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교 및 기관에서 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부모 및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겪는 청소년에게 유의미한 부모양육태도(따스함, 구조제공)를 밝혀냄으로써 정서행동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상담자태도를 유추해볼 수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사회적지지의 의미와 영향력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어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두 시기로 한정하여 살펴보

았다.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가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선행연구(최정원 외, 2021)로 보아 고등학교 시기까지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변화양상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 시기 별 요구되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낮추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하은혜, 송동호(2005)의 연구에서 남학생에게는 외현화문제가, 여학생에게는 내재화 문제가 더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현지 외(2005)의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증후군에 대한 성차를 조사한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신체증상이 높게 나타났다. 이태은(2010)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서 외현화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 반면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에서 성차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백승영, 이승희, 2014). 후속 연구에서는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에서의 성차와 성차가 고려된 잠재집단 분류 및 전이영향을 밝혀 구체적이고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 풍부하고,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겪는 청소년과 보호자와 지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 잠재집단 분류와 전이에 미치는 부모, 교사, 친구관계 변인을 살펴봄으로써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도움이 되는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교육과 교사를 대상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대한 이해와 교사의 지지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친구관계에 대해 부모와 교사의 지도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가정과 학교 현장에서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돕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 잠재집단 분류와 전이에 미치는 변인을 부모, 교사, 친구 관계 변인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에게는 부모, 교사, 친구관계 변인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약물치료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에 대한 개입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가영희, 조민자, 임성우 (2008).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논문집, 6(4), 31-42.
- 강문선, 임효진 (2021). 부정적 정서행동과 또래관계의 종단적 관계 분석: 초·중등 학교급의 차이. 교육혁신연구, 31(1), 231-249.
- 강운경, 김지원, 홍세희(2019). 산재근로자의 일자리만족도에 따른 프로파일의 잠재 전이분석과 영향요인 검증. 장애와 고용, 29(1), 35-60.
- 강정애(2016).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갈등적 친구관계 및 심리적 불안감과 문제행동의 구조관계: 성별 및 학교급별 다집단 분석. 위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지현(2014). 후기 아동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에 미치는 아동의 성별, 지각된 학업성적, 부모, 또래의 영향. 초등상담연구, 13(1), 155-173.
- 강혜성, 기쁘다(2021).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과 삶의 만족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신체증상의 순차적 매개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9(2), 403-422.
- 권오용, 이수진(2018). 부모양육태도와 친구관계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중학교와 고등학교시기의 비교. 21세기사회복지연구, 15(2), 1-24.
- 교육부(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세종: 저자
- 구승신, 정옥희, 장성화(201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225-237.
- 국민관심질병통계(20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출
- 기쁘다(202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부모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영향력과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 가족환경연구, 59(2), 215-231.
- 김경심(2022).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태도에 대한 잠재집단 분류: 집단별 영향요인과 집단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삶의 만족도 차이. 성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숙(2019). 부모의 구조제공이 중학생 자녀의 자율적 동기와 학업적 자기조절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자율성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33(1), 27-50.

- 김명화, 김혜진, 최재혁(2022). 부모의 비밀관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주의집중과 그릿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1), 17-32.
- 김미경(2020). ADHD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미술 중심 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6(4), 219-240.
- 김성희(2022). 또래코칭이 학업열의 및 대학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세연, 김재철(2020).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및 영향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7(7), 159-182.
- 김순희(2019).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신체화증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숙(2024). 사회정서역량 증진 미술 활동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내재화·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윤례(2020). 청소년의 신체증상과 삶의 만족도 및 교우관계 간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검증: 성별 간 다집단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진(2022).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ADHD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2016).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8): 457-473.
- 김정민, 송수지(2014). 중학생의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 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1), 5-27.
- 김정민, 장영희(2015). 청소년 스트레스와 신체화증상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스트레스연구, 23(4), 187-196.
- 김종백, 김남희(2009). 교원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STARS) 개발과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3(4), 697-714.
- 김진아, 한귀례(2014).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15(6), 2379-2399.
- 김태명, 이은주(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 김하람(202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또래관계 및 학업열의 구조적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령, 정애경(2022).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학교 상황에서 초등 6학년 여학생의 또래 관계 경험에 대한 탐색적 사례 연구 - 또래관계의 질적 측면 중 또래

- 애착을 중심으로.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학술대회, 2022(1), 371-387.
- 김해진, 권소영, 정선호, 이동훈(2023). 한국인의 문화적 자기관과 감정표현불능증의 관계: 세대에 의해 조절된 정서표현양가성 및 정서억제 연속매개과정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9(2), 171-197.
- 남수현, 배은정(2023).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신체화 증상의 관계에서 그릿과 우울의 이중 매개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6(1), 1-8.
- 노경선, 허묘연, 홍연주 (2003). 청소년기 애착유형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2, 116-123.
- 노영주, 김순혜(2016). 초·중등학생의 자기역량지각과 사회적 지지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차이. 청소년학연구, 23(5), 181-204.
- 민하영(2009).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유형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75-185.
- 박선희(2021).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친구관계, 스마트폰의존,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3(1), 131-156.
- 박선희(2022). 부모의 양육차원이 청소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층메타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희(2023). 중학생의 일상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연(2021). 청소년의 신체화 증상과 우울의 관계에 관한 종단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9(7), 409-417.
- 박수현, 천승현, 김보람(2017). 체육교사의 자율성지지와 동료 간의 관계성지지가 여고생의 심리적 욕구만족과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6(1), 81-97.
- 박시윤(2016). 만다라 미술치료가 ADHD 초등학생의 정서불안과 주의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단일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유진(2016). 보건실 이용 초등학생의 신체화 증상에 따른 애착안정성 및 사회적 지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2020). 아동의 우울이 주의집중을 매개로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 김민정, 정익중(2014).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발달유형에 따른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양상. 사회복지연구, 45(2), 5-30.

- 박현주(2021).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희정(2015). 학령 후기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325-344.
- 배장섭(2017). 부모양육행동, 정서문제 및 삶의 목표가 청소년의 학습습관에 미치는 영향. 뇌교육연구, 19, 51-71.
- 백수진, 임영진(2013). 친절한 청소년은 왜 행복한가?: 친절성, 사회적 지지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21(2), 25-36.
- 백승영, 이승희(2014).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정서행동문제의 정도 및 임상위험 차이. 정서행동장애연구, 30(2), 207-231.
- 백예은, 정혜원(2021).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업열의의 구조적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9(5), 275-304.
- 서영임(2019). 청소년의 주의집중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행동통제의 조절효과. 인지행동치료상담연구, 1(1), 31-42.
- 신선미, 조성숙, 이희우(2011). 학생건강검사를 통해 본 강남지역 초등학생의 정신건강 증상과 신체건강 증상의 관련성. 대한스트레스학회, 19(4), 293-301.
- 손병덕(2016).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정과 또래소외경험, 종교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4), 131-148.
- 손수경(2022). 청소년활동의 사회적지지가 참여빈도, 참여태도 및 성취기대를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초·중·고 학교급별 다집단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3(3), 77-102.
- 손신영(2017).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8(3), 29-44.
- 송경아(2016). 불안과 신체화 증상을 보이는 아동의 미술치료 단일사례 연구. 동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연주(2015). 초등학생의 ADHD 증상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돌봄과 교사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203-229.
- 송현주, 황순택(2016).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한 종단자료의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8(4), 25-46.
- 신태수(2014). 인간발달연구에서의 종단자료 분석: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인간

- 발달연구, 21(3), 1-28.
- 신현아(202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정서문제, 스마트폰 의존도, 학업무기력과의 구조적 관계.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균(2003). 한국판 아동 신체화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및 초등 고학년생의 신체 증상 경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2(4), 829-846.
- 안미영(2009). ADHD 아동의 감각처리능력이 행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통합치료연구, 1(1), 5-17.
- 안재순(2021). 중학생의 ADHD 성향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강인성과 성별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8(7), 79-99.
- 양준영, 김지원, 김수영, 홍세희(2019). 잠재전이분석을 적용한 청소년 사이버비행의 잠재계층분류 및 전이 영향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26(2), 101-130.
- 유계환(2021). 중학교 1 학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정서문제, 학업열의 사이의 구조적 관계. 아동교육, 30(4), 177-196.
- 유계환(2023). 중학생의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삶의 만족도, 학업열의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3(12), 738-747.
- 유다미, 안다희(2015). 청소년들의 관계성(교사-학생), 정서조절 및 학습몰입 간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23(3), 219-239.
- 윤기봉, 이사라(2017). 아동 청소년의 신체증상 관련변인 연구- 개인, 부모, 사회적 관계 변인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4(2), 39-57.
- 윤희경(2007). 초등학생의 신체증상 경험과 부정적 정서, 대처행동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대식(2003). 교사들이 지각한 초등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와 대처방안의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19(4), 283-302.
- 이동미, 김규태(2015). 중학생이 지각하는 또래관계와 교사관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및 학년의 조절효과. 교사교육연구, 54(2), 315-332.
- 이동엽(2017). 청소년 비행의 변화궤적에 대한 잠재계층 분류 및 예측요인 탐색.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식, 현유정, 이동호(2022). 초등학생의 학업열의에 대한 주의집중과 학교경험의 영향분석. 한국교육연구, 33(1), 21-35.
- 이명경, 이재규, 김종운, 김현진, 박혜숙, 백미숙, 송채홍, 신을진, 유형근, 이자영, 전명남(2013). 학습상담. 서울: 학지사.
- 이선영(2022). 스마트폰을 이용한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이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에

- 미치는 영향: 친구관계와 우울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3(3), 103-134.
- 이수경(2015).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에서 나타나는 중단변화와 그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2(10), 27-48.
- 이윤순(2017). 교사지지와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이선희(2021). 부모의 구조제공과 아동의 학업성취도의 관계: 그것에 의해 조절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
- 이원령(2015). 정서행동문제를 보이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변인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31(3), 401-420.
- 이자영(2013). 학년에 따른 학업열의의 잠재평균 차이 검증. 청소년학연구, 20(2), 1-21.
- 이자영, 이상민(2012). 한국형학업열의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 연구, 24(1), 131-147.
- 이정연, 박미희, 소미영, 안수현(2020). 코로나19와 교육: 학교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제희(2020). 양육태도와 ADHD 증상의 관계에서 지능의 매개효과.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은(201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부적정서 조절에 따른 문제행동.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지(2021). 초등학생이 지각한 주의집중,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교사-학생관계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목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지, 하은혜, 오경자(2005). 청소년기 정서 및 행동문제의 성차.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6(1), 117-123.
- 임은숙(2024). 부모 그것과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그것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희선(2023). 초등학교 4-5학년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잠재전이분석과 부모 양육행동, 사회적 관계의 영향요인 검증. 한국교육문제연구, 41(3), 49-82.
- 전숙영(2018). 부모의 과잉기대·간섭과 청소년의 신체화증상: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3(1), 55-67.
- 전숙화(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의집중력 및 공격성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이슬(2023).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애착과 학급풍토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조절된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선(202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신체화 증상 간 관계: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또래애착의 이중매개효과.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영, 문혁준 (2007).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8(5), 37-54.
- 정성진(2022). 남자 청소년의 ADHD 성향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 대인관계 형성과 인터넷 게임중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22(3), 212-221.
- 정현주(2012). 청소년의 부모애착관계와 자아탄력성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 구경미(2018).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우울의 관계: 교사애착, 또래애착 및 학교 유대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3): 309-326.
- 조봉환, 임경희(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석문(2004). ADHD 아동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혜, 송주연, 이우걸(2022). 부모 자율성지지와 구조제공의 상호작용이 중학생의 내적통제신념,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연구, 34(1), 167-185.
- 조홍식(2017). 체육수업에서 교사-학생관계 및 교우관계가 학생들의 학업적 흥미와 과제참여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6(5), 771-784.
- 지성애, 심재연, 정진화, 오세경(2017). 어머니의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제반 행동 특성 분석: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언어능력, 주의집중력, 작업기억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21(1), 655-685.
- 차지량, 유미숙(2010). 아동의 신체화 증상 경험과 관련 부모 및 아동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193-202.
- 최사라(2019). ADHD 아동의 정서 이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 이해와 사회성 기술 프로그램의 효과.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연희, 정창숙, 유준옥, 형나겸(2017). 초등학생의 신체화 증상에 관한 영향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1(3), 505-517.
- 최정아(2012).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및 개인,

- 부모, 또래영향요인 검증. 가족과 가족치료, 20(3), 431-455.
- 최정원, 문호영, 전진아, 박용천(2021).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1-492.
- 최정윤, 임효진(2021).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탄력성을 예측하는 요인: 그릿과 학업열의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921-950.
- 최지수, 박유미, 최나야(2020). 학교의 정서적 환경과 초등학생의 학업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중요인: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집행기능 곤란. 초등교육연구, 33(3), 259-282.
- 최진(2016). 부모양육태도 불일치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와 우울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명숙, 지은(2023). 초등학교 ADHD아동을 위한 중재적 개입 국내 연구 동향 및 질적 지표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9), 443-465.
- 하미영, 정현희(2021). 중학교 신입생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잠재계층 분류와 영향요인 검증. 아동교육, 30(2), 225-245.
- 하아영, 조한익(2021). 잠재전이분석을 적용한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 잠재집단 분류와 전이 영향요인 분석. 중등교육연구, 69(3), 299-330.
- 하은혜, 송동호 (2005). 청소년기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44(1), 89-97.
- 하주영, 심보운(2016). 청소년 비행과 사이버비행 및 정신건강. 글로벌 건강과 간호, 6(2), 80-88.
- 한기승(2016). 아동의 ADHD성향과 분노의 관계: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아름(2018). 부모의 삶의 만족도, 긍정적 양육행동,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5(5), 1-24.
- 한영지, 이민혜(202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와 교사의 지원이 자기조절 효능감을 매개로 온라인수업 참여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35(1), 217-236.
- 한정아(2017). 정서문제 프로파일의 잠재적 변화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교육평가연구, 30(3), 495-519.
- 한정원(2017). 자기회귀교차지연 모델을 활용한 청소년 우울과 신체화 증상의 인과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6), 646-652.
- 한준수(2016). 청소년의 삶의 질과 관련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분석.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호순(2016). 청소년의 기질특성과 심리적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함수현(2019). 놀이 활용 자기표현훈련 프로그램이 정서·행동문제 아동의 문제행동 및 주의집중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무녕, 김춘경(2022).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초등학교생의 여가시간 사용을 매개로 하여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6), 583-597.
- 허묘연, 옥정(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13(3), 116-123.
- 허영재, 김희화(2018). 부모의 과보호 및 거부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걱정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문제 지향 및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6(3), 15-25.
- 허인화(2022). 중학생의 정서문제 잠재집단 분류와 전이 영향요인 분석. 경상국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원준(2020). 중학생 정서·행동문제의 잠재프로파일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31(2), 291-320.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6), 716-723.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Arlington.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Using the BCH method in mplus to estimate a distal outcome model and an arbitrary secondary model. *Mplus Web Notes*, 21(2).
- B. Oerbeck, K. Overgaard, A. H. Pripp, H. Aase, T. Reichborn-Kjennerud, and P. Zeiner(2019). Adult ADHD Symptoms and Satisfaction with Life: Does Age and Sex Matter.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23(1), 3-11.
- Berk, L. (2010).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Boston, MA: Pearson.
- Berlin, K. S., Williams, N. A., & Parra, G. R. (201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part 1): Overview and cross-sectional latent class and latent profile analyses. *Journal of*

- Pediatric Psychology*, 39(2) 174-187.
- Clark, Shaunna Lynn. (2010). *Mixture modeling with behavioral dat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Pro 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 Collins, L. M., & Lanza, S. T. (2009).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Vol. 718). John Wiley & Sons.
- D. Peel & G. J. Mclachlan. (2000). Robust mixture modelling using the t distribution. *Statistics and Computing*, 10, 339-348.
- Diener et al.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Giordano, P. C.(2003).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9, 257-281.
- Grimm, Laurence G. & Yarnold, Paul R.(2000).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ncock, G. R., & Mueller, R. O. (Eds.). (201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second course* (2nd ed.). Charlotte, NC: Information Age Publishing.
- Hoza, B.(2007). Peer Functioning in Children With ADHD. *Ambulatory Pediatrics*, 7(1), 101-106.
- Jiang, X., Lyons, M. D., & Huebner, E. S. (2016). An examination of the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problem solving in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53, 141-151.
- Jung, T., & Wickrama, K. A.(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Karen Nylund-Gibson, Ryan Grimm, Matt Quirk, & Michael Furlong. (2014). A Latent Transition Mixture Model Using the Three-Step Specific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439-454.
- Landstedt, E., Hammarström, A., & Winefield, H. (2015). How well do parental and peer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predict health in adulthood?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43(5), 460-468.
- Gitta Lubke & Bengt O. Muthén. (2007). Performance of Factor Mixture

- Models as a Function of Model Size, Covariate Effects, and Class-Specific Parameter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1), 24-47.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 Lyons, M. D., Huebner, E. S., Hills, K. J., & Horn, M. L. (2013). Mechanisms of change in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1, 587-598.
- Mercugliano, M., Power, T. J., & Blum, N.J. (1999). *The Clinician's practical guide to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Brookes Publishing Co.
- Muthén, B., & Shedden, K. (1999). Finite mixture modeling with mixture outcomes using the EM algorithm. *Biometrics*, 55(2), pp.463-469
- Myers, S. S., & Pianta, R. C. (2008). Developmental commentary: individual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arly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7(3), 600-608.
- Nylund-Gibson, K., & Choi, A. Y. (2018). Ten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latent class analysis. *Translational Issues in Psychological Science*, 4(4), 440-461.
- R. Agarwal, M. Goldenberg, R. Perry, and W. W. IsHak(2012). The Quality of Life of Adults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 Systematic Review. *Innovations in Clinical Neuroscience*, 9(5-6), 1021.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 Sclove, S.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3), 333-343.
- S. M. van Geelen, P. A. Rydelius & C. Hagquist. (2015). Somatic symptoms and psychological concerns in a general adolescent population: Exploring the relevance of DSM-5 somatic symptom disorder.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79, 251-258.
- Sun, R. C., & Shek, D. T. (2010). Life satisfaction,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d problem behaviour among Chinese adolescents in

- Hong Ko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95, 455-474.
- Taylor, Z. E., Conger, R. D., Robins, R. W., & Widaman, K. F. (2015). Parenting practice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Longitudinal relations with the social competence of Mexican-origin children. *Journal of Latina/o Psychology*, 3(4), 193-208.
- Y. Ginsberg, J. Quintero, E. Anand, M. Casillas, and H. P. Upadhyaya(2014). Underdiagnosis of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in Adult Patien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Primary Care Companion for CNS Disorders*, 16(3), PCC.13r01600.

ABSTRACT

Analysis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Longitudinal changes in Adolescents' Attention Difficulties and Physical Symptoms Using LTA (Latent Transition Analysis)

Kim, Ji-Hy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This study applied latent transition analysis and conducted the following research. I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 teacher relationship, and friend relationship variables on the potential group classification and categorization of difficulty concentrating attention and physical symptoms during adolescence. Academic enthusiasm and life satisfaction were compared for each potential group of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I also examined the transfer pattern of the latent group of attention difficulties and physical symptoms from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Furthermore, the transfer pattern was examined focusing on variables such as parenting attitude, teacher relationship, and friend relationship. For latent group classification, the information index, quality of classification, comparative verification of models, and classification rate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determine the potential groups for difficulty in concentrating attention and physical symptoms. In addition, using the three-step approach proposed by Asparouhov and Muthén, academic enthusiasm and life satisfaction were compared for each potential group, and transfer patterns according to variables such as parenting attitude, teacher relationship, and friend

relationship were analyz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the 2018 Children and Adolescent Panel Data, and 2,154 people who responded to both difficulty concentrating and physical symptoms during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nd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were studi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in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latent groups of difficulti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as well as physical symptoms were identified as three groups: low group (53.4%), moderate group (39.3%), and high group (7.3%). Additionally, in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latent groups of difficulti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as well as physical symptoms were identified as three groups: emotional and behavioral issues group (45.4%), low group (44.6%), and high group (9.8%). Furthermore, adolescents with high levels of difficulti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within each latent group also showed high levels of physical symptoms, whereas adolescents with low levels of difficulti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showed low levels of physical symptoms. This indicates that there are distinct latent groups ranging from adolescents with relatively low levels of difficulti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and physical symptoms to those with high levels. and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comorbidity.

Second, when examining the classification of latent groups based on difficulti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as well as physical symptoms in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it was found that parental caregiving attitudes (warmth, rejection, inconsistency) and peer relationships had a significant impact during this period.

Third, when examining the classification of latent groups based on difficulti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as well as physical symptoms in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it was found that parental caregiving attitudes (warmth, rejec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during this period.

Fourth, when examining the transition patterns of latent groups of difficulti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as well as physical symptoms from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it was found that out of the adolescents, 662 (30.7%) showed an increase in

symptoms compared to those in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1,042 (48.4%) maintained their symptoms, and 450 (20.9%) showed a decrease. It was observed that there were more cases where difficulti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as well as physical symptoms were maintained or increased over time rather than decreased.

Fifth, when examining the results of variables by latent groups of difficulti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as well as physical symptoms in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it was found that the high group had lower academic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contrast, the low group had higher academic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Thus, there were differences in academic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latent groups of difficulti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as well as physical symptoms.

Sixth, when examining the transition of latent groups of difficulti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as well as physical symptoms from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focusing on parental caregiving attitudes, teacher relationships, and peer relationships, it was found that in the case of the low group in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he more positive the teacher relationship,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belonging to the moderate group in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compared to the high group. For the moderate group in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he more structurally supportive the parental caregiving attitudes,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belonging to the low group in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compared to the high group. Moreover, warmer and structurally supportive parental caregiving attitudes also increased the likelihood of belonging to the moderate group in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compared to the high group. Thus, it was evident that parental caregiving attitudes (structural support, warmth) and teacher relationship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transition of latent groups.

Key words : Attention Difficulties, Physical Symptoms, Latent Transition Analysis